

이 지구상은 말할 나위 없이 좁디좁은 땅 한국 안에도 직업의 종류가 3천 몇백 가지가 된다고 한다. 그 중에는 실속은 없으나 존경받는 직업, 실속(?)은 있으나 존경 못 받는 직업, 외형상은 그럴듯하나 내용이 없는 직업, 외형상 존경은 못 받으나 내적으로는 철학이 충만한 직업 등 다양하다.

건축사, 그들은 누구인가?

Architects, who are they?

조구현 /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 Gu-Hyeon

그렇다면 우리 건축사는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 직업일까? 자부심이 있는 직업일까? 자부심은 있고 내용이 없는 직업일까? 자부심이나 내용이 다 없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도 있는 것일까? 다시 태어나도 건축 Design을 할 것인가? 그 반대인가? 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선뜻 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사회에서 초면인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나면 으레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하고 묻는다. 대답은 “설계사무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는 어쩐지 당당하지 못하다. 다음번 기회 때는 “건축Design 합니다.”하고 슬쩍 영어를 써본다. 이때는 어쩐지 무보수 취미로 하는 것같은 인상을 주어 경제력이 없어 보여 이도 그리 당당치 못하다. 스스로 나는 예술가요, 또는 건축가요 하기에는 좀 쑥스럽다. 멋있게(?) 아니면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없을까? 변호사는 법만 하면 되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엔지니어링만 하면 된다. 또,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만을 하면 된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업만을 하면 된다. 우리 건축사는 어떠한가? 예술, 법, 엔지니어링, 운영의 모두를 복합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에는 작품활동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하고도 복합적인 일들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호 상반된 학문을 교묘하게 균형을 맞추어 나아가면서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끌어 올렸다고 생각하고 싶다.

돌이켜 보건대 건축법에 있어서의 60년대는 건축법을 모르고도

작품활동을 하는데 거의 걸림돌이 없을 정도였던 것은 건축법이 불과 몇 페이지의 계획학의 기본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으리라.

70년대에 들어 오면서 건축법이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80년대에 와서는 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대되어 감과 동시에 복잡하면서도 다양해져갔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극에 달함과 동시에 법의 개정보완이 조석으로 바뀌다시피 하여 디자인 업무는 제쳐두고 바뀌는 법만을 공부하기에도 벅찰 지경에 이르른다. 출판사가 조석으로 바뀌는 법으로 인하여 법관계 책자의 출판을 못할 지경에 까지 이르른다.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건축법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들린 적이 있다. 그때 아연 놀랐던 것은 법을 담당하는 담당자수가 적다는 것이었다. 우리 건축사의 수는 정확히는 모르나 5천명 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많은 건축사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을 선택도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이기적 입장만을 내세워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몇몇의 담당자들에 의하여 법이 확정되어 버리고... 건축사들은 그때에 와서야 불만이나 터뜨리고, 책임전가나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들이었다. 여기에 와서는 다시 감리단인데, 종합건설회사도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네, 기술사들도 감리를 할 수 있게 하네, 야단들이다.

같은 건축사들 간에도 설계전담 사무소와 감리단간에 이권다툼이나 하고, 이전투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쯤되니 협회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협회에 꾸준히 관심을 갖던 회원들도 너무나 복잡하여 수수방관 상태에 들어갈 뿐아니라 차라리 무력감

에 빠졌다고 보는 편이 옳다고 하겠다. 또, 이쯤 되면 모양새도 안좋고 실속도 점점 없어지게 마련이다. 나는 제자리에 그대로 놓아두고 내상태를 유지하자면 주위를 끌어 내리는 수밖에는 없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식의 단계는 미신, 상식, 과학, 철학, 종교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건축수준의 단계는 어떠한 순서일까. 확신할 수는 없으나 초보적 단계의 하나로서 최소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 기능적측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의 발전된 사회에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아름답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예술성이 가미되어야하며 아름다움만으로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니 철학이 다시 첨가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의 세계라는 측면에서는 종교적 가치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기능, 예술, 철학, 종교의 네단계중 어디쯤에 와있다는 것인가?

스스로 점수를 먹여 봄직도 하다.

얼마전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어느 미국인이 영시를 읊어 댔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 소개해 본다.

Bell is not a bell until it is rang.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요.)

Song is not a song until you sing it.

(노래는 부를 때 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Love is your heart is not put there to stsy.

(마음속에 사랑은 그 곳에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Love is not love until you give it away.

(사랑은 남에게 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